

공개용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0-5호)

2021. 11. 18.

무 역 위 원 회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은 아래와 같이 기준년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연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기준년도 값 : 금액은 10,000. 물량 등은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의 경우에는 %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무역위원회 의결서

2021.11.18.
의결 제2021-15호

조사번호 : 구제 23-2020-5호

안건명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신청인 : 한국화학섬유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9층

피신청인 : <중국>

1.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 (“형이”) 및 그 관계사¹⁾
Ya Qian, Xiaoshan District, Hangzhou, Zhejiang²⁾
2. 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신평밍”) 및 그 관계사³⁾
No.777 Jinlin Road, Donglin Town, Wuxing District, Huzhou City, Zhejiang Province, China⁴⁾
3. ZHEJIANG TIANSHENG CHEMICAL FIBER CO., LTD.(“티앤성”) Building 1, SAN Qiu, Binhai Industrial Zone, Keqiao District, Shaoxing city, Zhejiang Province, China^u

1) 형이 및 그 관계사 :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이하 “형이”), Zhejiang Hengyi Polymer Co., Ltd.(이하 “형이폴리머”), Zhejiang Hengyi High-tech Material Co.(이하 “형이하이테크”), Ltd., Shaoxing Keqiao Hengming Chemical Fiber Co.(이하 “형밍”), Ltd., Jiaxing Yipeng Chemical Fiber Co., Ltd.(이하 “이평”), Hangzhou Yijing Chemical Fiber Co., Ltd(이하 “이징”). Zhejiang Shuangtu New Material Co., Ltd.(이하 “상투”),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 Sales Co., Ltd.(이하 “형이세일즈”) 등 8개사
2) 각 관계사의 주소는 “[별지]피신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3) 신평밍 및 그 관계사 : 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이하 “중시”), Tongxiang Zhongxin Chemical Fiber Co., Ltd.(이하 “중신”), Tongxiang Zhongwei Chemical Fiber Co., Ltd.(이하 “중웨이”), Tongxiang Zhongchen Chemical Fiber Co., Ltd.(이하 “중첸”), Tongxiang Zhongchi Chemical Fiber Co., Ltd.(이하 “중치”), Zhejiang Xinfengming Import and Export Co., Ltd.(이하 “신평밍 무역”), Tongxiang Zhongyi Chemical Fiber Co., Ltd.(이하 “중이”) 등 7개사
4) 각 관계사의 주소는 “[별지]피신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4. 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
 (“귀왕”) 및 그 관계사⁵⁾
 Meiyang Industry Zone, Pingwang, Wujiang, Suzhou, Jiangsu⁶⁾
5.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형리”) 및
 그 관계사⁷⁾
 No 1 Hengli Road, Economic Development Zone of Nanma,
 Shengze Town, Wujiang District, Suzhou City, Jiangsu Province,
 China⁸⁾
6. 그 밖의 공급자

상기 안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관련 규정들과 관세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제1호, 제63조제1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한다.
2. 이에 따라 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공급자별로 다음과 같은 율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 형이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95%
 - 신평밍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79%

5) 귀왕 및 그 관계사 : 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이하 “귀왕”), Jiangsu Ganghong Fiber Co., Ltd.(이하 “강홍”), Jiangsu Shenghong Technology Trading Co., Ltd.(이하 “성홍테크”), Suzhou Shenghong Fiber Co., Ltd.(이하 “성홍섬유”), Jiangsu Zhonglu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이하 “중루”) 등 5개사
 6) 각 관계사의 주소는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7) 형리 및 그 관계사 : Jiangsu Hengli Chemical Fiber Co., Ltd.(이하 “형리”), Jiangsu Deli Chemical Fiber Co., Ltd.(이하 “더리”), Jiangsu Hengke Advanced Materials Co., Ltd.(이하 “형커”) 등 3개사
 8) 각 관계사의 주소는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 티앤성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6.11%
- 귀왕과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0.91%
- 형리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00%,
- 그 밖의 공급자 : 7.75%

이 유

한국화학섬유협회(이하 “신청인”)가 2020.11.26.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건에 대하여,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은 신청인 및 국내생산자, 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하고,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WTO 반덤핑협정 관련 규정들과 관세법 제51조⁹⁾ 및 제52조¹⁰⁾, 동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제1호¹¹⁾, 제63조제1항 및 제4항¹²⁾, 제65조제1항 및 제2항¹³⁾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 9) 관세법 제51조 : “……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 10) 관세법 제52조 : “①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항 생략)”
- 11)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9항제1호 :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 12)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제4항 : “①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1.~5.호 생략)”, “④무역위원회는 덤핑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 13)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제2항 : “①……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주문과 같이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다 음

I. 배경

신청인은 2020.11.26.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조사실은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2021.1.27. 이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국내생산자는 성안합섬(주), (주)티케이케미칼, 대한화섬(주), 도레이첨단소재(주), 효성티앤씨(주), (주)휴비스 등 6개사이며, 조사실은 이들 6개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질의서를 발송하는 한편, xxx사, xxx사 등 국내 수입자 20개사와 xxx사, xxx사 등 국내 수요자 16개사(이 중 15개사는 국내 수입자와 중복)에 대해서도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신청서 상 신청인이 제시한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는 중국의 신픽밍, 형리, 형이, 성홍, 티앤성, 룡성, 통쿤 등 7개사이다. 그러나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세청 통관자료상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형이, 신픽밍, 티앤성, 귀왕, 형리 등 5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고, 이들 5개사에 대해 해외공급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1.9.16. 본 건 반덤핑 조사의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본 건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9조에 따라 최종판정 전에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이 포함된 수정된 중간보고서 공개본을 2021.10.19.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2021.11.2.에는 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종덤펅를 산정내역 등 덤펅를 심사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II. 조사대상물품, 조사대상물품 범위 검토, 국내 동종물품, 국내산업의 범위 및 비밀취급

1. 조사대상물품

조사대상물품의 명칭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이다. 조사범위는 테레프탈산(TPA)¹⁴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¹⁵을 중합(重合)¹⁶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¹⁷이 이루어진 제품이며 FDY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artially Oriented Yarn, POY¹⁸)가 직방사와 동시에 혼합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에 해당하는 관세품목분류번호¹⁹는 HSK 5402.47.9000이다.

조사보고서²⁰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은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한 백색의 실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져 있다. 완전한 연신으로 인해 고분자 결정부분이 길이 방향으로 적절히 배열되어 있어 직물이나 편물의 제조에 가공없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흡습성이 낮아 정전기를 일으키기 쉬우나 산과 알칼리, 일광 및 대기에 대하여 저항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조사대상물품은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 등에서 광범위한 소재로 사용되며, 기능 및 촉감을 다양화하여 용도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연사(Twisted Yarn) 또는 혼섬사(Intermingled Yarn)의 모사(母絲)로도 사용 사용된다.

14) TPA(Terephthalic Acid, 화학식 $C_8H_6O_4$)는 원유에서 정제, 분해되어 생성되는 파라자일렌(PX)으로부터 얻어지는 순백색의 분말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용 원료와 비디오, 오디오용 필름, PET병 등의 원재료로도 쓰이며, 페인트 및 산업용 원사 등에도 사용된다.

15) MEG(Monoethylene Glycol, 화학식 CH_2OHCH_2OH)는 무색, 무취, 흡습성의 시럽형 액체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원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동액, 글리세린의 대용, 용제, 윤활유, 유기합성, 전해콘덴서용 페이스트, 계면활성제 필름의 습윤 및 가소제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16) 중합(Polymerization)이란 어떤 화합물 분자가 2개 이상 결합하여 보다 분자량이 큰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뜻한다.

17) 연신(延伸, drawing)이란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섬유가 방사(紡絲)된 후의 분자배열이 극히 불량하고 신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분자배열을 개선시키고 강신도(強伸度) 등 물리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섬유를 길이 방향으로 잡아 늘리는 조작을 뜻한다.

18)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부분적인'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이며 주로 연신(延伸, drawing), 가연(假捻, false-twisting) 등 추가 가공을 거쳐 사용된다.

19) 관세품목분류번호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다.

20) 조사보고서 pp.4~5.

조사대상물품은 국내 수입상이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대상물품 범위 검토

조사보고서²¹⁾에 의하면, 조사실은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무역위원회공고 제202-2호, 2021.1.27.)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토록 공고하였다. 그러나 기한 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대상공급자 귀왕 및 귀왕의 주 수입자 미도교역(주)에서 의견제출 기한이 3개월여가 지난 2021.5.12, 2021.8.27에 Recycled FDY와 Antimonium Free FDY를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 “Ⅶ.2.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요청 검토”²²⁾에서 검토하였다.

3. 국내 동종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2.6조에 따르면, “동종 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조사보고서²³⁾에 의하면, 조사실은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제조공정,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 조사대상물품과 비교하여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가. 물리적 특성

21) 조사보고서 p7.

22) 조사보고서 pp.175~178.

23) 조사보고서 pp.8~17.

조사보고서²⁴⁾에 의하면, 신청인측(본 건 조사신청을 한 한국화학섬유협회와 그 회원사인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강도, 신도, 열수수축률, 사(絲)불균제도(不均齊度, Unevenness), 데니어(Denier) 등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측은 그 근거로 조사대상물품 공급자인 'xxx사'의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자인 xxx사의 국내생산품을 비교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시험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국내산업이 제시한 업계에서 통상 사용되고 있는 FDY원사의 물리적 특성별 규격 기준 범위 내에 있거나 국내산업의 관리 범위 내에 있어,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입자와 수요자도 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등에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신청인측이 제출한 시험성적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강도, 신도, 열수수축률, 사불균제도, 데니어 등이 업계 통용 규격기준 내지 국내산업 관리 범위 내에 있어 그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수입자와 수요자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나. 구성요소 및 용도

조사보고서²⁵⁾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이 중합(重合)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 등에서 광범위한 소재로 원사의 가공없이 바로 사용되며, 연사(Twisted Yarn) 또는

24) 조사보고서 pp.8~10.

25) 조사보고서 p.10.

혼섬사(Intermingled Yarn)의 모사(母絲)로도 사용되고 있는 등 다양한 수요산업의 원료로 공급되고 있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그 구성요소 및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다. 품질 및 소비자 평가

1) 수입자 및 수요자측 의견

조사보고서²⁶⁾에 의하면, 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수요자 2개사는 모두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상호 대체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수입자 4개사 중 3개사와 수요자 1개사도 대부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수입자 중 미도교역(주)는 일반 원사에 있어서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 간에 품질 차이가 없으나, 차별사(특수사)에 있어서는 데니어, 사불균제도, 정장률 등 측면에서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품보다 우수하여 선호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미도교역(주)는 9,000m 길이의 실의 중량(g)을 나타내는 데니어(Denier)에 있어서 국내생산품이 기준 데니어(Denier) 보다 2~3% 낮으며, 단위길이 당 실의 굵기가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사불균제도(Unevenness)에서도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품보다 우수하고, 콘(cone) 마다 감긴 실의 길이가 동일함을 나타내는 정장률에 있어서도 조사대상물품은 콘 마다 실의 길이가 동일하나 국내생산품은 콘 마다 실의 길이가 다른 정도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미도교역(주)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조사대상공급자가 작성한 조사대상물품의 물성표(technical specification)는 제출하였으나,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필요한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6) 조사보고서 pp.10~14.

2) 신청인측 의견

상기와 같은 수입자측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측은 차별사를 포함한 국내생산품은 물리적 특성별 규격 기준 또는 국내산업의 관리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 조사대상물품과 차이가 없고, 수요자들(후공정 원단 제직업체 등)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번갈아 가면서 대체사용하고 있어 사용상의 품질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측은 데니어(Denier) 차이는 기준 데니어(Denier) $\pm xxx \sim xxx\%$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그 범위 내에서는 우열의 차이가 없고, 데니어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며, 사불균제도(U%)²⁷⁾는 $xxx\%$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는 품질의 차이가 없고, 일반원사에 대한 시험성적서 결과로 전체 조사대상물품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시험결과를 보면 국내산업의 ‘ $xxx\%$ 이하’ 관리기준에서는 국내생산품의 사불균제도(U%)가 오히려 조사대상물품 보다 낮아 그 품질이 우수하였고, 국내생산품 생산 시 권취기(winder)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그 가동이 중단되도록 시스템 제어되고 있는 바, 동일제품은 일정 권취속도로 동일시간 동안 생산되므로 생산되는 실의 정장률은 동일하며, 수요자들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사용하여 동일한 원단을 제직할 수 있고, 원단 제직 시 작업성, 효율, 불량 원단발생 등의 차이가 없어 사용상 품질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측은 수입자측이 제출한 차별사 조사대상물품 5개 품목의 물성표 중 비교 가능한 차별사 국내생산품 2개 품목의 물성표를 제출하였고, 비교 결과 강도, 신도, 열수수축률, 데니어 등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 간에 의미 있는 물성차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이해관계인들이 일반사에 있어서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27) 사(絲)불균제도(不均齊度, Unevenness)는 실의 단위길이 당 중량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평균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평균편차백분률(Percentage Mean Deviation)이라하며, U%로 표기하고, U% 값이 적다는 것은 단위길이 당 중량의 평균편차가 적은 것으로서 실의 굵기가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질 및 소비자 평가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데 이견(異見)이 없으므로 일반사에 있어서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 및 소비자 평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조사실은 차별사(특수사)에 있어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먼저,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를 제외한 이해관계인들은 일반사와 차별사를 구분하지 않았는 바, 수요자들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상호 대체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수입자와 수요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들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신청인측은 차별사를 포함한 국내생산품은 사불균제도(U%)와 데니어(Denier)에 있어서 국내산업의 관리범위 이내(사불균제도 xxx%이하, 기준 데니어 \pm xxx~xxx%)에서는 우열의 차이가 없고, 정장률도 시스템으로 제어되고 있어 동일하며, 수요자들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사용하여 동일한 원단을 생산할 수 있어 품질 및 사용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이 제출한 차별사간 물성표상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해 볼 때, 강도, 신도, 열수축률, 사불균제도, 데니어 등이 업계 통용 규격기준 내지 국내산업의 관리범위 내에 있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 의미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신청인측과 다수의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과 물성표상 물리적 특성 비교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차별사에 있어서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은 동일 또는 유사하며, 특히, 수요자들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상호 대체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라. Recycled FDY 관련 검토

조사보고서²⁸⁾에 의하면, 조사실은 차별사의 일종인 조사대상물품인 Recycled

FDY와 국내생산품인 Recycled FDY가 동종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먼저,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은 조사대상물품인 Recycled FDY와 국내생산품인 Recycled FDY가 동종물품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이 각각 제출한 Recycled FDY의 물성표를 비교해 볼 때, 강도, 신도, 열수수축률 등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국내업체에서 통용되는 규격 내지 국내산업의 관리범위 내에 있어,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물품인 Recycled FDY와 국내생산품인 Recycled FDY는 PET병의 회수, 세척, Flake(Recycled 폴리에스테르 Chip)로 분쇄, 원사방사 등의 제조공정을 거치고 있어, 제조공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인 Recycled FDY와 국내생산품인 Recycled FDY는 모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친환경 의류 등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요소와 용도측면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조사대상물품인 Recycled FDY와 국내생산품인 Recycled FDY는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인 Recycled FDY와 국내생산품인 Recycled FDY는 물리적 특성, 제조공정, 구성요소 및 용도, 소비자 평가 및 품질,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마. 기타

28) 조사보고서 pp.15~16.

조사보고서²⁹⁾에 의하면, 조사실은 국내생산품은 제조공정,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도 조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국내 동종물품 관련 종합 검토

조사보고서³⁰⁾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해관계인들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 및 소비자 평가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일반사를 제외한 차별사에 있어서는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품보다 품질이 우수하여 선호도가 높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실은 신청인측이 제출한 시험성적서 결과, 수입자 및 수요자측의 의견,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이 제출한 물성표 비교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사는 물론 Recycled FDY를 포함한 차별사에 있어서는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은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소비자평가에 있어서는 품질 수준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대체가능한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상기에서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품명, 정의,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제조공정,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유통경로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국내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4. 국내산업의 범위

가.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4.1조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

29) 조사보고서 p.10. 및 pp.14~15.

30) 조사보고서 pp.16~17.

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국내총생산량 비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 국내생산자의 조사대상물품 수입 여부, 국내생산자의 당해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³¹⁾에 의하면,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확인결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5.1.~'20.10.31.) 기간에 있어서 xxx사, xxx사, xxx사, xxx사는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으나, xxx사와 xxx사는 동 기간 중 수입한 실적이 있어 이들을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국내산업 답변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5.1.~'20.10.31.)의 기간에 있어서 xxx사, xxx사 및 xxx사는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나, xxx사와 xxx사는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있고, X사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어 이들을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였다.

1) xxx사

조사보고서³²⁾에 의하면,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확인 결과, xxx사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5.1.~'20.10.31.)에 조사대상물품 약 xxx톤(전체 수입물량 약 xxx톤의 1%이하)을 수입한 실적이 있으나, 이는 아주 근소한 수입물량이므로 xxx사를 국내산업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2) xxx사

31) 조사보고서 pp.22~25.

32) 조사보고서 p.23.

조사보고서³³⁾에 의하면,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및 국내산업 답변서 등을 확인한 결과, xxx사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5.1.~'20.10.31.)에 조사대상물품 약 xxx톤(전체 수입물량 약 xxx톤의 1%이하)을 특수관계에 있는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xxx사로부터 수입한 실적이 있으나, 이는 근소한 수입물량으로 볼 수 있으므로 xxx사를 국내산업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3) xxx사

조사보고서³⁴⁾에 의하면,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및 국내산업 답변서 등을 확인한 결과, xxx사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5.1.~'20.10.31.)에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인 xxx사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동 공급자로부터의 조사대상물품 수입실적은 약 xxx톤(전체 수입물량 약 xxx톤의 1%이하)인 바, 이는 아주 근소한 수입물량이므로 xxx사를 국내산업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4) X사

조사보고서³⁵⁾에 의하면,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조사신청서 확인 결과, X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조사대상물품 수입자인 Y사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5.1.~'20.10.31.)에 조사대상물품 약 xxx톤(전체 수입물량 약 xxx톤의 1%이하)을 수입한 실적이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³⁶⁾에 따라 X사를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33) 조사보고서 p.23.

34) 조사보고서 p.24.

35) 조사보고서 pp.24~25.

36)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X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Y사에 내국신용장 거래(Local L/C 수출)로만 국내 동종물품을 판매하였기에, 조사실은 X사가 비특수관계자와의 동종물품 내국신용장 수출거래 시에도 특수관계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또는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X사는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인 '17년~'20년 상반기 기간 중에 Y사에게 비특수관계자 보다 평균 xxx% 높은 가격으로 국내 동종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가격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 가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실은 X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비특수관계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국내 동종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5) 국내산업의 범위 종합 검토

위원회는 상기에서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성안합섬(주), (주)티케이케미칼, 대한화섬(주), 도레이첨단소재(주), 효성티앤씨(주), (주)휴비스 등 6개사 전부를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위원회는 성안합섬(주), (주)티케이케미칼, 대한화섬(주), 도레이첨단소재(주), 효성티앤씨(주), (주)휴비스 등 국내생산자 6개사의 '19년도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량 합계(xxx톤)는 국내총생산량(xxx톤)의 전부(100%)로서, 본 건에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성안합섬(주), (주)티케이케미칼, 대한화섬(주), 도레이첨단소재(주), 효성티앤씨(주) 및 (주)휴비스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사업의 합”으로 결정한다.

나.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국내생산자와 산업피해 분석

1) 절차적 측면

가)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산업피해지표) 제출 국내생산자

조사보고서³⁷⁾에 의하면, 조사실은 예비조사 기간('21.1.27.~'21.6.25.) 중 국내 생산자 6개사 전부에 대해 조사질의서를 발송('21.1.29.) 하였으나, xxx사와 xxx사의 2개사만 '국내생산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이하 "산업피해지표")를 제출('21.3.22.)하였다.

이후 조사실이 본조사 기간('21.6.26.~'21.11.25.) 중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내생산자 4개사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조사질의서를 재차 발송('21.7.6.)한데 대해, xxx사와 xxx사의 2개사가 새로이 '산업피해지표'를 제출('21.8.13.) 하였다. 이에 따라 xxx사, xxx사, xxx사, xxx사 등 국내생산자 총 4개사가 '산업피해지표'를 제출하였다.

나) 산업피해지표 제출기업 관련 의견제출 기회 제공

조사보고서³⁸⁾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반덤핑협정 제6.2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인이 의견 개진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회의('21.4.14.)와 산업피해조사 공청회('21.9.16.)를 개최하는 한편, WTO 반덤핑협정 제6.9조에 따라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사실을 이해관계인들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21.10.19.)하였다.

먼저, 조사실은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회의('21.4.14.)에 앞서 이해관계인회의의 참여자에게 '국내생산자(신청인 포함)·수입자·수요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공개요약본³⁹⁾'과 他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 공개요약본'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조사실은 조사신청서 공개본, 조사개시 결정 검토보고서 공개본을 예비조사 기간('21.1.27.~'21.6.25.) 중에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37) 조사보고서 pp.25~26.

38) 조사보고서 pp.26~28.

39) 국내생산자(협회 포함) 답변서 3건, 국내수입자 답변서 6건, 국내수요자 답변서 2건 등 총 11건

동 자료에는 산업피해지표 제출기업이 xxx사와 xxx사 등 2개사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사실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업명과 기업 수 등 산업피해지표 제출기업 관련 정보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였으나, 예비조사 기간('21.1.27. ~ '21.6.25.) 중 피신청인(조사대상공급자)과 국내수입자, 국내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이와 관련한 주장이나 의견을 특별히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본조사 기간('21.6.26. ~ '21.11.25.) 중 산업피해조사 공청회('21.9.16.) 개최에 앞서 공청회 참여자에게 '중간 조사보고서' 공개본과 他이해관계인의 '공청회 발언요지 공개요약본'을 제공하고, '중간 조사보고서' 공개본을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21.9.13.)하였다.

아울러,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9조에 따라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사실을 이해관계인들에게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중간 조사보고서(수정본)' 공개본을 이해관계인들에게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21.10.19.)하였다.

공청회에 참여한 수입자, 수요자, 조사대상공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제공되고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된 '중간 조사보고서'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된 '중간 조사보고서(수정본)'의 공개본에는 산업피해지표 제출 국내생산자가 총 4개사라는 사실과 이들 4개사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량의 합계가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50%초과)을 점하고 있어 조사실은 이들 4개사의 산업피해지표가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보고서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들 4개사가 제출한 자료를 이용한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사실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업 수 등 산업피해지표 제출기업 관련 정보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였으나, 본조사 기간('21.6.26. ~ '21.11.25.) 중 피신청인(조사대상공급자)과 국내 수입자, 국내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이와 관련

한 주장이나 의견을 특별히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내용적 측면

조사보고서⁴⁰⁾에 의하면, 조사실이 예비조사 기간('21.1.27.~'21.6.25.) 중 국내 생산자 6개사 전부에 대해 조사질의서를 발송('21.1.29.)한데 대해 xxx사와 xxx사의 2개사가 '산업피해지표'를 제출('21.3.22.)하였다. 이후 조사실이 본조사 기간('21.6.26.~'21.11.25.) 중 '산업피해지표'를 제출하지 않은 국내생산자 4개사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조사질의서를 재차 발송('21.7.6.)하였다. 이에 대해, xxx사와 xxx사의 2개사가 새로이 '산업피해지표'를 제출('21.8.13.)함에 따라 xxx사, xxx사, xxx사, xxx사 등 국내생산자 총 4개사가 '산업피해지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실은 현지실사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국내생산자 6개사 중에서 4개사가 산업피해지표를 제출하였고, 산업피해지표를 제출한 국내생산자 4개사의 '19년도 기준 동종물품 생산량의 합계가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50%초과)을 점하고 있어 이들 4개사의 산업피해지표가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산업의 피해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본 의결서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들 4개사가 제출한 자료를 이용하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본 의결서 “VI. 국내산업의 피해”, “V.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등에 있어서 xxx사, xxx사, xxx사 및 xxx사 4개사의 산업피해지표 내지 정보를 대상으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분석한다.

5. 비밀취급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조사신청서, 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등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

40) 조사보고서 pp.28~29.

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⁴¹⁾에 의하면, 신청인,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조사신청서,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공청회 및 이해관계인회의 의견서 등 비밀취급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⁴²⁾를 소명하고, 이와 함께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한 점, 비밀취급요청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자료 제출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취급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비밀취급 여부 검토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41) 조사보고서 pp.35~38.

Ⅲ. 덤핑사실

위원회는 덤핑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공급자의 선정 및 조사 경과 등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공급자별로 덤핑사실여부를 검토하였다.

1.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조사보고서⁴²⁾에 의하면, 조사개시 당시, 조사실은 관세청 통관자료를 통해 약 130개 공급자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사기간 내에 모든 공급자에 대해 덤핑사실 조사 및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수출비중 상위 5개사인 '형이', '신평밍', '티앤성', '귀왕', '형리'를 조사대상 공급자(selected respondent)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조사 참여신청서를 제출(2021.3.23. ~ 3.30.)하여 조사에 대한 참여 및 협조 의사를 표명하였다.

2. 덤핑사실 조사경과

조사보고서⁴³⁾에 의하면, 조사실은 2021.1.27. 덤핑조사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2021.3.3.~3.8.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이를 검토하여 당초 2021.3.9.이었던 답변기한을 2021.3.23.로 2주 연장하는 것을 승인·통보하였다. 형이, 신평밍, 형리 조사대상공급자는 '21.3.22.에 추가로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이를 검토하여 답변기한을 2021.3.30.로 1주 추가 연장하였으며 연장된 기한 내에 모든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서가 접수되었다.

조사실은 2021.5.18.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원답변서의 검증을 위한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고, 2021.5.27. 모든 조사대상공급자가 보충질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42) 조사보고서 p.39.

43) 조사보고서 pp.39~40.

조사실은 2021.9.13.~9.30. 모든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 실사 검증⁴⁴⁾을 실시하였고, 2021.8.12.에는 예비덤핑률과 관련, 2021.11.2.에는 최종덤핑률과 관련,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사실 조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가. 형이(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 및 그 관계사

조사보고서⁴⁵⁾에 따르면 형이 및 그 관계사는 형이 그룹에 속한 계열사들로, 절강성(浙江省)에 소재하고 있다. 형이 및 그 관계사는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판매 및 지분관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단일 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하였다.

조사실은 형이 및 그 관계사가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토대로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다만, 주요 투입요소 관련 원가자료의 경우에는, 관계사의 비관계사 판매가격 등이 원천자료로 증빙되지 않고 비관계사 거래비율이 미미하여 제조원가의 정상성에 반영할 수 없을 시, 비관계사 구매비율이 90% 이상인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자료를 적정 시장거래 가격으로 간주하고 물량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이용 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분류기준으로 등급, 염색여부, 데니어, 필라멘트 수, 광택 등 5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형이 및 그 관계사는 CCN 분류에 대한 별도 의견 없이⁴⁶⁾ 답변서를 제출하여 당초 제시한 CCN 분류기준을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44)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현지 파견 실사가 곤란함에 따라 2021.9.23.~9.24간 조사대상공급자의 위임을 받은 국내대리인 대면 조사 및 중국 현지 기업인 온라인 참여 실사를 실시하였다.

45) 조사보고서 pp.40~51.

46) 조사실은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2021.1.27 ~ 2.24.)를 제공하였다.

조사실은 형이와 그 관계사의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CCN이 통상거래가격으로 확인되어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원가미만 판매 여부 검증과 관련하여,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정상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조원가의 정상성을 반영하였고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판매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투자수익 등은 제외하여 생산원가를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내륙운반비, 신용비용을 정상가격에서 조정하였다.

조사실은 형이 및 그 관계사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포장비를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과세가격은 형이 및 그 관계사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⁴⁷⁾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고,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3.95%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나. 신평밍 (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 및 그 관계사

조사보고서⁴⁸⁾에 따르면 신평밍 및 그 관계사는 신평밍 그룹에 속한 계열사들로, 절강성(浙江省)에 소재하고 있다. 신평밍 및 그 관계사는 내부거래를 통해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하는 등 상호 밀접한 생산, 판매, 지분관계로 관련되어 있어 단일 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하였다.

조사실은 신평밍 및 그 관계사가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47) Cost, Insurance and Freight

48) 조사보고서 pp.52~62.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토대로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다만, 주요 투입요소 관련 원가자료의 경우에는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가격의 정상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가격을 적정 시장가격으로 보고 제조원가를 조정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분류기준으로 등급, 염색여부, 데니어, 필라멘트 수, 광택 등 5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신평밍 중시 및 그 관계사는 CCN 분류에 대한 별도 의견 없이⁴⁹⁾ 답변서를 제출하여 당초 제시한 CCN 분류기준을 토대로 정상 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조사실은 신평밍 및 그 관계사의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CCN이 통상거래가격으로 확인 되어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원가미만 판매 여부 검증과 관련하여,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정상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조원가의 정상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판매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정부 보조금 성격의 투자수익 등은 제외하여 생산원가를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내륙운반비,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정상가격에서 조정하였으며 조사대상물품의 직접판매비인지 여부가 증빙되지 않은 광고비는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조사실은 신평밍 및 그 관계사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포장비용을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과세가격은 신평밍 및 그 관계사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⁵⁰⁾ 가

49) 조사실은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2021.1.27 ~ 2.24.)를 제공하였다.

42) Cost, Insurance and Freight

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고,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5.79%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다. 티앤성(Zhejiang Tiansheng Chemical Fiber Co., Ltd.)

조사보고서⁵¹⁾에 따르면 티앤성은 생산자 겸 수출자로 절강성(浙江省)에 소재하고 있으며, 닝보 허위안 홀딩스(Ningbo Heyuan Holdings Co., Ltd)가 최대주주(100%)로 닝보 허위안 홀딩스(Ningbo Heyuan Holdings Co., Ltd.) 등 그룹 관계사부터 조사대상물품의 주요 원재료를 구매하였다.

티앤성은 조사질의서⁵²⁾ 및 보충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조사실은 티앤성이 제출한 답변서에서 필드별 설명 및 산출 근거의 누락, 조정요소 산출 및 원가자료의 오류를 다수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사 검증⁵³⁾에서 공정비교를 위해 필요한 내수판매 등급을 보고하지 않은 점과 판매의 완전성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점을 추가 확인하였다. 조사실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출된 답변자료 전반에 걸쳐 체계적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답변 누락 및 오류와 관련하여, 내수판매 파일의 필드별 설명을 전체 누락⁵⁴⁾하였고 신용비용 계산 오류로 조정요소 금액을 약 5배 과다 보고하였으며, 내수판매 조정요소가 없다고 답변한 항목에 대해 파일포맷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제조 원가 구성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요 투입요소 및 관계사 거래 자료의 금액, 구매비중 등에서 오류가 확인되었다.

실사 검증에서 추가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한국수출 판매는 모두 AA등급으로 제품의 등급을 보고하였으나 내수판매 자료는 모든 거래건의 등급을 누락

51) 조사보고서 pp.61~72.

52) 조사질의서에는 필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 예비 및 최종 판정에 심각한 방해로 하는 경우, 무역위는 별도로 입수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있다.

53) 2021.9.23.~9.24간 티앤성의 위임을 받은 국내대리인 대면 조사 및 현지 기업인 온라인 참여 실사를 실시하였다.

54) 예컨대, 반덤핑 질의서 59p에서는 내륙운반비를 보고하고 운송수단, 운반비 계산방법을 설명해야 하며 배송업체와의 관계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며 그 사유 또한 합리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⁵⁵⁾ 또한 답변서상 내수 및 수출판매의 물량, 금액의 합계가 판매의 완전성 검증을 위해 제출한 검사보고서 및 시산표 등의 회계자료와 정확히 일치 하지 않아 완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실은 최종덤핑률 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 회의(2021.11.2.)를 통해 티앤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2021.11.8.)받아 검토하였다. 또한 티앤성의 요청이 있을 시 생산원가 조정, 원가미만 검증 등을 포함한 덤핑률 산출과정을 엑셀파일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 하였다.

그러나 티앤성은 2021.11.8. 제출한 의견서에서 답변자료의 누락, 오류 사항 등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였고, 수정된 답변자료를 토대로 덤핑률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조사실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⁵⁶⁾ 또한 덤핑률 산출 과정에 대한 엑셀파일 열람 요청도 없었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WTO반덤핑협정 제6.8조, 동부속서Ⅱ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티앤성이 제출한 자료를 일부 인정하지 않거나 이용 가능한 자료로 대체하였다. 내수판매 조정요소로 답변한 내륙운반비와 신용비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스크랩 비용의 제조원가 차감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AA 미만 등급의 내수판매 단가를 AA 등급內 CCN별 판매단가의 가중평균으로 대체 하였다.

아울러, 주요 투입요소 관련 원가자료의 경우에는, 관계사의 비관계사 판매가격 등이 원천자료로 증빙되지 않고 비관계사 거래비율이 미미하여 제조원가의 정상성에 반영할 수 없을 시, 비관계사 구매비율이 90% 이상인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자료를 적정 시장거래 가격으로 간주하고, 물량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이용 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분류기준으로 등급, 염색여부, 데니어, 필라멘트 수, 광택 등 5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티앤성은 CCN 분류에 대한 별도 의견 없이⁵⁷⁾

55) 티앤성 관계자는 실사과정에서 '방대한 자료를 추출하기 어려워 제품의 등급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으나, 실사 종료후 등급구분이 반영된 전체 내수판매 자료를 조사실에 제출하였다.

56) 조사보고서 p.64 각주 85) 참조

답변서를 제출하여 당초 제시한 CCN 분류기준을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조사실은 티앤성의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상거래가격으로 확인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원가미만 판매 여부 검증과 관련하여,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정상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조원가의 정상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스크랩 비용의 차감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 물품의 생산, 판매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투자수익 등은 제외하여 생산원가를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티앤성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을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해상운반비 가운데 음의 비용이 발생한 거래 건은 0의 값을 적용하였고 포장비는 타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자료를 사용하여 조정요소로 반영하였다.

과세가격은 티앤성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⁵⁸⁾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고, 조정된 정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6.11%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라. 귀왕(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 및 그 관계사

조사보고서⁵⁹⁾에 따르면 귀왕 및 그 관계사는 이스턴 성흥 그룹의 계열사들로, 강소성(江蘇省)에 소재하고 있다. 귀왕 및 그 관계사는 그룹 관계사로부터 주요 원재료를 구매하였으며 상호 내부거래를 통해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는 등 밀접한 생산, 판매, 지분관계에 있어 단일 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하였다.

57) 조사실은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2021.1.27 ~ 2.24.)를 제공하였다.

49) Cost, Insurance and Freight

59) 조사보고서 pp.72~86.

조사실은 귀왕 및 그 관계사가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토대로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다만, 주요 투입요소 관련 원가자료의 경우에는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가격의 정상성을 반영하기 위해 원재료 공급 관계사가 제3의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제조원가를 조정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분류기준으로 등급, 염색여부, 데니어, 필라멘트 수, 광택 등 5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귀왕 및 그 관계사는 당초 CCN 분류에 대한 별도 의견 없이⁶⁰⁾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귀왕은 2021.5.31. 제출한 보충질의 답변서 및 2021.8.12. 이해관계인회의 등에서, 기 제출된 답변자료의 일부 CCN에 일반 FDY와 구별되는 고가(高價)의 특수사 제품(DT 및 복합 FDY)이 함께 포함되어 별도의 CCN을 구성하여 수정된 답변자료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실은 귀왕 및 그 관계사가 조사개시 이후 4주간 CCN 구성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CCN의 변경에 따른 수정된 원가 및 판매 자료는 새로운 답변서와 다름없어 이를 그대로 수용할 시 답변서 제출기한(연장 포함 54일)을 규정한 협정 제6.1.1조 등이 무력화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제출된 답변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귀왕과 그 관계사의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상거래가격으로 확인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원가미만 판매 여부 검증과 관련하여,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정상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조원가를 조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판매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투자수익 등은

60) 조사실은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2021.1.27 ~ 2.24.)를 제공하였다.

제외하였고, 원답변서에서 자료제출이 누락된 일부 관계사의 판매관리비 등을 가산하여 생산원가를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내륙운반비, 신용비용을 정상가격에서 조정하였다.

조사실은 귀왕 및 그 관계사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을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해상운반비 가운데 음의 비용이 발생한 거래건은 0의 값을 적용하여 조정하였다.

과세가격은 귀왕 및 그 관계사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⁶¹⁾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고,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10.91%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마. 형리(Jiangsu Hengli Chemical Fiber Co., Ltd.) 및 그 관계사

조사보고서⁶²⁾에 따르면 형리와 그 관계사는 형리 그룹에 속한 계열사들로, 절강성(浙江省)에 소재하고 있다. 형리 및 그 관계사는 그룹 관계사로부터 주요 원재료를 구매하였고 상호 지분 관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단일 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하였다.

조사실은 형리 및 그 관계사가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토대로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다만, 주요 투입요소 관련 원가자료의 경우에는, 관계사의 비관계사 판매가격 등이 원천자료로 증빙되지 않고 비관계사 거래비율이 미미하여 제조원가의 정상성에 반영할 수 없을 시, 비관계사 구매비율이 90% 이상인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자료를 적정 시장거래 가격으로 간주하고 물량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이용 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61) Cost, Insurance and Freight

62) 조사보고서 pp.86~101.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분류기준으로 등급, 염색여부, 데니어, 필라멘트 수, 광택 등 5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귀왕 및 그 관계사는 당초 CCN 분류에 대한 별도 의견 없이⁶³⁾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형리와 그 관계사의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상거래가격으로 확인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원가미만 판매 여부 검증과 관련하여,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정상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조원가를 조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판매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정부 보조금 성격의 기타 투자수익 등은 제외하여 생산원가를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내륙운반비, 하역비,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정상가격에서 조정하였으며 하역비는 내수판매의 하역작업에 수반된 비용만 인정하였다.

조사실은 형리 및 그 관계사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반비, 해상운반비, 포장비용 등을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다. 해상운반비 가운데 음의 비용이 발생한 거래 건은 0의 값을 적용하였고 포장비는 타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자료를 활용하여 수출과 내수판매간 비용차이를 반영하였다.

과세가격은 형이 및 그 관계사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⁶⁴⁾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고,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5.00%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4. 덤핑률 산정결과⁶⁵⁾

63) 조사실은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2021.1.27 ~ 2.24.)를 제공하였다.

64) Cost, Insurance and Freight

65) 조사보고서 p.102.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어 답변서를 제출한 중국의 형이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3.95%, 신평밍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5.79%, 티앤성에 대하여 6.11%, 귀왕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10.91%, 형리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5.00%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WTO 반덤핑협정 제5.8조⁶⁶⁾에서 규정한 최소허용 수준을 초과함을 보여준다.

이에 위원회는 위 산정된 덤핑률에 근거하여 조사대상기간(2019.7.1.~2020.6.30.) 중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덤핑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66) “(전략)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마진은 최소허용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후략)”

IV. 국내산업의 피해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및 제3.2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a)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 동 수입품이 이러한 물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하여야 하며,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대상기간('17년에서 '20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 중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물량 및 가격 효과)와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가동률, 판매 및 재고, 시장점유율, 가격 및 제조원가, 이윤, 고용 및 임금 등 제반 경영지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 : 물량 및 가격 효과

가.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효과

1)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절대적 증가 여부

조사보고서⁶⁷⁾에 의하면, 덩핑물품의 수입물량은 '17년 1,000톤에서 '18년 820톤으로 18.0% 감소하였으나, '19년에는 1,303톤으로 전년대비 58.9% 증가하였고, '20년 상반기에는 609톤으로 전년동기대비 변동폭($\Delta 0.8\%$)이 미미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⁶⁸⁾ 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18년도에 덩핑물품 수입이 전년대비 18.0% 감소한 것은 다음과 같은 덩핑물품의 공급측 요인과 덩핑물품에 대한 수요측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먼저, 수입자측은 '18년도 중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TPA 및 MEG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미·중 무역마찰의 본격화로 인한 위안화 절상 및 덩핑물품 수출가격 상승, 국제 원면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제인 화학섬유에 대한 수요증가 등 공급측 요인에 의한 덩핑물품의 가격상승에 따라 덩핑물품에 대한 국내 수입수요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수입자측은 덩핑물품의 수요자인 국내 니트, 화섬 등 후공정 직물업계는 구조적인 고임금과 더불어 '18년도 중 원화 강세,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따른 염료가격 상승, 국내·외 FDY 원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로 인하여 직물에 대한 수출오더 확보가 부진함에 따라 수요측면에서도 덩핑물품에 대한 국내 수요량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18년도의 경우 국내소비 감소, 공급측 요인 등의 영향으로 덩핑물품의 수입물량이 '17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19년 및 '20년 상반기에는 '17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고,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도 덩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연평균 6.8%)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2) 덩핑물품 수입의 상대적 증가 여부

조사보고서⁶⁹⁾에 의하면, 덩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국내소비 감소 등으로

67) 조사보고서 pp.106~107.

68) 연평균 증감률은 '17~'20년간을 대상으로 하되, '20년 연간수치는 '20년 상반기 수치의 2배수를 적용하였으며, 이후 동 보고서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다만, 가격, 재고 등 2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69) 조사보고서 pp.107~108.

인해 '17년 xxx%에서 '18년 xxx%로 전년대비 2.8%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이나,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3.0%p, 5.3%p 상승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14.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1)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비교

조사보고서⁷⁰⁾에 의하면,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17년 10,000천원에서 '18년 10,580천원으로 5.8% 상승하였으나, '19년 9,450천원, '20년 상반기 8,31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0.7%, 16.4% 하락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6.0%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17년 10,000천원에서 '18년 11,187천원으로 11.9% 상승하였으나, '19년 10,598천원, '20년 상반기 9,10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3%, 16.6%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17년에는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 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18년 이후 조사대상기간 중에는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연도별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2)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가) 덤핑물품의 저가판매 여부

조사보고서⁷¹⁾에 의하면, '17년에는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

70) 조사보고서 pp.109~110.

71) 조사보고서 pp.110~111.

품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18년 이후 조사대상기간 중에는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 대비 '17년 xxx% 수준에서 '18년 xxx%,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 수준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xxx%p 하락하였으며, 국내 동종물품 대비 덤핑물품의 가격차이도 '17년 xxx천원, '18년 △xxx천원, '19년 △xxx천원, '20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18년 이후 덤핑물품의 저가판매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

조사보고서⁷²⁾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17년에는 국내 동종물품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18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국내 동종물품보다 저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연평균 6.0% 하락한데 대해 국내 동종물품은 연평균 3.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18년이후 '20년 상반기 기간 중에는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가 내수 판매가격의 xxx~xxx%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산업은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의 낮은 판매가격에 영향을 받아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다)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

조사보고서⁷³⁾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실제판매가격은 적정판매가격보다 '17년 xxx천원, '18년 xxx천원, '19년 xxx천원, '20년 상반기 xxx천원 낮아, 조사대상기간 중 상당한 가격차이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적정판매가격 대비 '17년 xxx%,

72) 조사보고서 pp.111~112.

73) 조사보고서 pp.112~113.

'18년 xxx%,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대부분 저가로 판매되었고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등락 방향이 일치하였으며,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이 적정판매가격의 xxx~xxx%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판매가격의 xxx~xxx%)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업적자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가격이 상승 억제되도록 덤핑물품이 영향을 준 것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조사실은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수준이고 '17년 xxx%에서 '20년 상반기 xxx%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국내시장의 가격결정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생산자가 제조원가(판매가격의 xxx~xxx%)를 반영하여 판매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2.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생산량 및 가동률

조사보고서⁷⁴⁾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3% 증가하여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연간 약 xxx톤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17년 1,000톤에서 '18년 989톤, '19년 963톤, '20년 상반기 332톤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1%, 2.6%, 31.0% 감소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측은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중 내수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10.6%)하고, 수출판매량도 대체로 감소('18년 0.6%증가, 연평균 △13.5%)함에 따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연평균 △12.7%)하였지만, 수출판매량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상쇄하기 위한 내수판매량이 확대되었다면 생산량은 증가하였을

74) 조사보고서 pp.114~116.

것인 바, 덤핑물품 수입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 내수판매량이 충분히 증가되지 못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청인측은 덤핑물품 수입확대 및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급감에 따라 xxx~xxx기간 중 국내산업은 생산시설의 상당부분을 가동 중단하거나 생산을 축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동일한 수준이나 생산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가동률은 '17년 xxx%, '18년 xxx%, '19년 xxx%로 서서히 하락하였으며, '20년 상반기에는 xxx%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26.5%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측은 '17~'19년 기간 중 생산량과 가동률이 서서히 하락한 것은 가동률을 줄이더라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이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생산량과 가동률이 하락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검토하였다.

나. 판매 및 재고

조사보고서⁷⁵⁾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총출하량은 '17년 1,000톤에서 '20년 상반기 332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17년 1,000톤에서 '18년 943톤, '19년 901톤, '20년 상반기에는 357톤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7%, 4.4%, 18.7%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17년 1,000톤에서 '18년 1,259톤, '19년 1,370톤, '20년 상반기 1,458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75) 조사보고서 pp.116~117.

1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측은 국내산업의 생산량이 소폭 감소('18년 $\Delta 1.1\%$)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년 기말재고가 전년대비 25.9% 증가한 것은 내수판매량('18년 $\Delta 5.7\%$) 및 자가소비('18년 $\Delta 34.4\%$)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19년 기말재고가 계속 증가(8.8%)한 것은 '18년에 증가한 재고자산이 여전히 판매되지 못한 채 남아있고 수출판매량이 소폭 감소('19년 $\Delta 0.9\%$)한 상태에서 국내소비 확대('19년 19.7%)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 수입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19년 $\Delta 4.4\%$) 및 시장점유율이 축소('18년 xxx% \rightarrow '19년 xxx%) 되었기 때문이며, '20년 상반기의 기말재고 증가(6.1%)도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확대('19년 xxx% \rightarrow '20상 xxx%)에 따른 영향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소비가 연평균 3.0% 감소하고, 기타국산 수입물량이 연평균 20.1% 감소한 상황에서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이 연평균 10.6% 감소하고 기말재고가 연평균 13.4% 증가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확대(연평균 6.8%)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검토하였다.

다.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⁷⁶⁾에 의하면, '18년의 경우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전년대비 감소폭($\Delta 18.0\%$)이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의 전년대비 감소폭($\Delta 5.7\%$) 보다 더 큼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17년 xxx%에서 '18년 xxx%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0.9%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도 '17년 xxx%에서 '20년 상반기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3.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이와 같은 국내 동종물품과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이 '17년 xxx%에서 '20년 상반기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14.2%p 상승한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76) 조사보고서 p.118.

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덤핑마진의 크기

조사보고서⁷⁷⁾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내수 판매가격은 '17년 10,000천원에서 '18년 11,187천원으로 11.9% 상승하였으나, '19년 10,598천원, '20년 상반기 9,10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3%, 16.6%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17년 10,000천원에서 '18년 11,027천원으로 10.3% 상승하였으나, '19년 10,047천원, '20년 상반기 9,140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8.9%, 11.9%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0%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이러한 제조원가의 하락은 조사대상기간 중 제조원가의 xxx~xxx%를 차지한 단위당 재료비가 연평균 8.5% 하락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단위당 노무비가 연평균 11.0% 증가함에 따라 제조원가의 하락 정도를 다소 상쇄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원재료인 TPA와 MEG는 국제석유가격에 연동되는데, 톤당 TPA 가격은 '17년 10,000천원에서 '20년 상반기 7,485천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9.2% 하락하였으며, 톤당 MEG 가격은 '17년 10,000천원에서 '20년 상반기 5,480천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8.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덤핑물품과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판매가격이 제조원가(xxx~xxx%)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격 하락 내지 상승이 억제됨에 따라, 제조원가 하락(연평균 $\Delta 3.0\%$)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하락(연평균 $\Delta 3.1\%$)에 영향을 주었다기 보다는 덤핑물품의 낮은 판매가격(연평균 $\Delta 6.0\%$)이 영향을 준 것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조사보고서⁷⁸⁾에 의하면, 조사실은 덤핑물품의 덤핑률이 미소마진 이상

77) 조사보고서 pp.119~120.

78) 조사보고서 p.120.

이므로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덤핑마진이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토하였다.

마.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조사보고서⁷⁹⁾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17년 △xxx백만원에서 '18년 △xxx백만원, '19년 △xxx백만원, '20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적자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내수부문 영업이익률도 '17년 △xxx%에서 '18년 △xxx%,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지속적인 부진세를 보이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2.5%p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률은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업종의 평균영업이익률⁸⁰⁾과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이와 같은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부문 영업이익 적자 추세는 덤핑물품과의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제조원가(판매가격의 xxx~xxx%)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한편, 오히려 판매가격을 인하(연평균 △3.1%)한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⁸¹⁾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투자수익률은 '17년 △xxx%에서 '18년 △xxx%,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인 부진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실은 이는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에 의한 수입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⁸²⁾에 의하면,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17년 △xxx백만원에서 '18년 △xxx백만원, '19년 △xxx백만원, '20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79) 조사보고서 p.121.

80) 화학섬유(C205) 업종 매출액 영업이익률(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기업경영분석) : '17년 4.37%, '18년 3.96%, '19년 5.08%, '20년 3.73%

81) 조사보고서 p.122.

82) 조사보고서 p.122.

바. 고용 및 임금, 생산성 및 성장성

조사보고서⁸³⁾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17년 1,000명에서 '18년 1,061명, '19년 1,083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6.1%, 2.1% 증가하였으나, '20년 상반기에는 1,06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측은 고용은 비탄력성을 가지는데, '18년 고용인원 증가는 '18.7월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인한 인원충원에 따른 것이고, '19년의 증가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원충원과 함께, 기업전체 고용인원을 생산량 기준으로 국내 동종물품과 기타 물품으로 안분할 때 '19년의 경우 기타 물품의 생산량 비중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통계적인 이유 때문이며, '20년 상반기 인원감소는 COVID-19 등으로 인한 판매량 급감과 공장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1인당 평균임금은 '17년 10,000천원에서 '18년 9,864천원, '19년 9,992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4%, 1.3%씩 소폭 등락하였으나, '20년 상반기에는 4,455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 하락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이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1인당 평균임금이 하락한 것은 국내산업이 호봉승급, 매년 최저임금인상, '18.7월 이후 주 52시간 적용 등 임금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가 덤핑물품의 수입확대의 영향(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또는 상승억제에 따른 임금하락 또는 임금상승 억제)을 받은 것으로 검토하였다.

조사실은 이상에서 볼 때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 적용 등에 따라 연평균 고용인원에 대한 덤핑물품의 영향은 다소 미약하였지만, 1인당 평균임금은 저가 덤핑물품의 수입 확대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⁸⁴⁾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생산량, 1인당

83) 조사보고서 pp.123~124.

매출액 및 1인당 부가가치는 조사대상기간 중 고용인원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량, 총매출액 및 총부가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연평균 11.0~16.4%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생산량은 '17년 1,000톤, '18년 932톤, '19년 889톤, '20년 상반기 312톤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8%, △4.6%, △30.2%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4.6% 감소하였고, 1인당 매출액은 '17년 10,000백만원, '18년 9,980백만원, '19년 9,246백만원, '20년 상반기 2,926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2%, △7.4%, △37.9%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6.4% 감소하였으며, 1인당 부가가치는 '17년 10,000백만원에서 '18년 10,897백만원으로 9.0% 상승하였으나, '19년 7,236백만원, '20년 상반기 3,523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3.6%, △23.5%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이와 같이 생산성 관련 지표가 악화된 것은 조사대상기간 중 고용인원이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덤핑물품의 수입확대 등으로 인해 생산량,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감소한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인측은 고용인원 및 제조원가에 대해 내수와 수출부문으로 구분할 수 없어 1인당 부가가치도 내수와 수출부문으로 구분할 수는 없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내수판매 및 수출판매 손익이 모두 악화됨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가 악화되었는데, 이는 주로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인해 충분한 내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사보고서⁸⁴⁾에 의하면, 조사실은 국내산업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가동률 하락, 내수부문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감소와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하여 내부적인 수익창출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성장을 위한 투자여력 등 성장성이 저해된 것으로 검토하였다.

사.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84) 조사보고서 pp.125~126.

85) 조사보고서 p.126.

조사보고서⁸⁶⁾에 의하면, 조사실은 국내산업이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인 내수부문 영업손실로 인해 내부 자본조달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대상기간 중 xxx사의 기업 신용등급이 '17년 xxx에서 '18년 xxx로 하락하는 등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국내산업의 외부 자본조달능력도 약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⁸⁷⁾

조사보고서⁸⁸⁾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설비투자액은 '17년 10,000백만원에서 '18년 5,467백만원, '19년 4,49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5.3%, 17.7% 감소하였으며, '20년 상반기에는 1,602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중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자측은 국내생산자들이 폴리에스테르 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인식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등한시한 결과, 일반사 위주 생산, 공급량 감소,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하락 내지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입자측은 공청회('21.9.16.) 시에 FDY 생산은 일시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서, 국내생산자들의 설비투자는 낡은 설비에 대한 보수성의 설비 보완, 설비 교체에 불과하며, 국내생산자들은 FDY 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안하는 상태이며,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에 따른 적자로 인해 투자여력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수입자측은 공청회 후 신청인측이 제출한 보완자료에 대한 반론자료에서 FDY 설비투자는 장치산업으로서 수백억원대의 일괄적인 투자로 모든 시설이 첨단화, 자동화, 대형화되어야 가격경쟁력, 품질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면서, (주)티케이케미칼이 인수한 코오롱머티리얼(주)의 설비는 이미 30년 이상된 설비이고 코오롱머티리얼(주)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산업에서 퇴출('19년)될

86) 조사보고서 pp.126~127.

87) <비공개>

88) 조사보고서 pp.127~130.

때 폐기 예정인 일부 설비를 저단가에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측은 중국산 덩핑물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덩핑물품의 저가판매에 따른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투자여력 상실, 덩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더 낮아질 우려, 외부조달 보다는 내부자금으로 투자자금 충당 등으로 인해 투자를 방해받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있는 소량 다품종의 차별화 제품 생산 설비구축 등 생존을 위해 설비투자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주)티케이케미칼은 공청회('21.9.16.) 시에 FDY산업을 사양산업으로 판단하였다면 '19.9월 생산설비와 인력 등을 포함한 코오롱머티리얼(주)의 차별사 사업부문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수관련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국내 동종물품의 조사대상기간 전체의 매출액 합계 대비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 합계 비율은 적지 않은 약 xxx% 수준(총 약 xxx억원 규모)⁸⁹⁾이고, 국내산업이 '18년이후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영업적자를 보였다는 점, 특히, (주)티케이케미칼은 '19년도에 생산설비와 인력 등 코오롱머티리얼(주)의 차별사 사업부문을 인수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수입자측이 주장하듯이 국내생산자들이 FDY 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조사실은 국내산업은 신청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덩핑물품 수입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조달능력 등이 약화됨에 따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검토하였다.

아. 종합 검토

위원회는 상기에서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17년~'20년 상반기) 전체적으로 국내산업은 연평균 고용인원 등 일정 수준을 유지한 부문도

89) 국내 동종물품의 조사대상기간 쏘기간의 매출액 합계(xxx백만원) 대비 조사대상기간 쏘기간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 합계액(xxx백만원) 비율은 약 xxx%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있지만, 생산량 및 가동률, 재고 및 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가격,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임금, 성장성,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대부분의 피해지표가 덤핑물품의 수입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조사보고서⁹⁰⁾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조사대상기간 중 매년 감소하여 연평균 12.7% 감소하였고, 가동률도 '17년 xxx%에서 '20년 상반기 xxx%로 매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기간 중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매년 감소하여 연평균 10.6% 감소하였고, 기말재고는 매년 증가하여 연평균 13.4% 증가하였으며, 동종물품 시장점유율은 '17년 xxx%에서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10.9%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내수부문 영업이익률은 '17년 △xxx%에서 '18년 △xxx%,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지속적인 부진세를 보이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2.5%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에 의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국내산업은 시장점유율 축소 및 재고 확대와 함께,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자본조달 능력 등이 제약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이 저해됨으로써 국내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성이 억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90) 조사보고서 pp.114~130.

V.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WTO 반덤핑협정 제3.5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면, 덤핑수입품이 동 협정 제3.2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동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조사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물량 및 가격효과)와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는데 유의미한 제반 경제적 지표의 검토를 통해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지와 덤핑물품 수입 이외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다른요인’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

조사보고서⁹¹⁾에 의하면, 첫째,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18년(820톤)에는 국내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준연도('17년을 말하며 이하 같음, 1,000톤)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나, '19년(1,303톤)과 '20년 상반기(609톤)에는 기준연도와 비교하여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조사대상기간('17년~'20년 상반기) 전체적으로도 연평균 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은 '18년에는 xxx%로 국내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준연도('17년 xxx%)와 비교하여 2.8%p 소폭 하락하였으나,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기준연도와 비교하여 크게 확대(각각 10.1%p, 14.2%p)되는 등 덤핑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91) 조사보고서 pp.142~145.

조사실은 이러한 덤핑물품의 수입물량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영향을 받아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연평균 $\Delta 10.6\%$)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은 '18년에는 기준연도('17년 xxx%) 대비 3.6%p 소폭 상승하였으나,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기준연도 대비 크게 하락(각각 $\Delta 7.2\%p$, $\Delta 10.9\%p$)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기준연도('17년 xxx%)와 비교하여 '18년에서 '20년 상반기 기간 중에는 국내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되었고,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6.0%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이러한 덤핑물품의 저가판매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19년과 '20년 상반기에는 영업적자 속에서도 가격이 하락(전년동기대비 각각 $\Delta 5.3\%$, $\Delta 16.6\%$)하였고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3.1% 하락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이 적정판매가격의 xxx~xxx%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받아 가격상승이 억제되는 등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과 가격상승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조사실은 이상과 같은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및 가격 효과에 따라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생산량 및 가동률의 하락, 시장점유율 축소 및 재고 확대와 함께,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자본조달 능력 등이 제약되고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이 저해됨으로써 생산성과 성장성이 억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검토하였다.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요인'의 영향

가.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조사보고서⁹²⁾에 의하면, 덤핑물품 이외의 기타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

전연신사 수입물량은 '17년 1,000톤, '18년 789톤, '19년 630톤, '20년 상반기 255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0.1%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도 '17년 xxx%에서 '20년 상반기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3.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덤핑물품 이외의 기타국산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덤핑물품 보다 높았으며, 국내 동종물품 보다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은 감소하였고, 시장점유율도 하락하였으며, 그 판매가격도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보다 지속적으로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다.

나. 국내소비 변화

1) '18년도 국내소비 감소 관련

조사보고서⁹²⁾에 의하면,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18년도에 FDY 국내소비가 전년대비 12.1% 감소한 것은 국내 섬유산업(니트, 화섬 등 후공정 직물업체 등)이 구조적인 고임금,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외 FDY 원사가격 상승,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따른 염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제품경쟁력이 하락함에 따라 FDY 수요량이 절대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측도 '18년의 국내소비 감소 원인을 '18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후공정 원단(직물) 업체들의 채산성 악화 및 원단의 수출경쟁력 약화에 따라 FDY 원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수입자 및 국내생산자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8년 중 국내 후공

92) 조사보고서 pp.146~147.

93) 조사보고서 pp.148~149.

정 식물업체(니트, 화섬 등)는 구조적인 고임금, 원화강세, 염료가격 상승,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외 FDY 원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원단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오더가 부진함에 따라 FDY에 대한 수요량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조사실은 '18년도에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국내소비량의 전년대비 감소폭($\Delta 12.1\%$) 보다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의 전년대비 감소폭($\Delta 5.7\%$)이 작고, 금액기준으로 보면 국내소비 감소($\Delta 4.2\%$)에도 불구하고 동종물품 내수판매액이 전년대비 증가(5.4%)한 것을 볼 때, '18년도에 있어서 국내소비 감소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2) '20년 상반기 국내소비 감소 관련

조사보고서⁹⁴⁾에 의하면, 수입자측은 COVID-19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섬유제품 수요 감소, 수출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20년 상반기 국내수요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측은 2020년 전세계적인 COVID-19로 인해 국내소비가 감소하였으나, '20년 상반기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확대되었는데, 이는 국내수요 감소가 국내산업 피해발생 원인의 일부일 수도 있으나,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20년 상반기 중 국내소비가 전년동기대비 10.0% 감소하였고,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이 18.7% 감소한 것을 볼 때, '20년 상반기 중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 감소가 국내소비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20년 상반기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xxx% 수준으로 저가 판매되었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변동폭(전년동기대비 $\Delta 0.8\%$)이 미미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은 확대('19: xxx% → '20상: xxx%, 4.0%p)된 점 등을 볼 때, '20년 상반기 중 국내산업 피해는 국내소비 감소보다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검토하였다.

94) 조사보고서 pp.149~150.

3) 국내소비 관련 종합 검토

조사보고서⁹⁵⁾에 의하면, 조사실은 '18년 중 국내소비 물량과 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12.1%, 4.2% 감소하였으나, 동종물품 내수판매는 전년대비하여 물량이 5.7% 감소한데 비해 금액은 5.4% 증가한 것을 볼 때, '18년의 FDY 국내소비 감소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조사실은 전년대비하여 '19년의 경우 국내소비량이 19.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이 4.4% 감소한 것을 볼 때, 국내소비가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20년 상반기 중 국내소비가 전년동기대비 10.0% 감소하였으나, 덤핑물품이 동종물품 대비 xxx% 수준으로 저가 판매되었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Delta 0.8\%$)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시장점유율은 확대('19: xxx% → '20상: xxx%, 4.0%p)된 것을 볼 때, 국내산업 피해는 국내소비 감소보다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조사실은 국내소비량이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0% 감소한데 비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연평균 10.6% 감소한 점 등을 볼 때,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국내소비 감소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다. 수출실적

1) 수입자측 의견

조사보고서⁹⁶⁾에 의하면,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공청회('21.9.16.)에서 '18년~'21년 상반기 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물량은 중국으로부터의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 대비 2.2배에서 3.6배에 이르고, 이러한 밀어내기식 출혈수출로 인한 적자가 국내산업 피해 원인 중의 하나이며,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산업 피해

95) 조사보고서 p.150.

96) 조사보고서 pp.151~153.

간의 인과관계는 미약하다고 주장하였다.

미도교역(주)는 이러한 국내생산자의 밀어내기식 출혈수출로 인해 터키정부에 Polyester 완전연신사가 반덤핑 제소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터키측 소식에 의하면 상당히 높은 덤핑혐의 상태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도교역(주)는 공청회 후 제출한 보완자료에서, 2020년도에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TPA, MEG 가격과 해상운임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후 2021년도에는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TPA, MEG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FDY 원사단가가 약 U\$0.20/kg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해상운임 인상으로 인해서도 FDY 원사단가가 약 U\$0.50/kg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등 총 U\$0.70/kg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도교역(주)는 조사대상공급자는 이러한 원자재 가격 및 해상운임 인상폭을 수입가격에 반영함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국내 생산자들의 수출단가는 5~6배 인상된 해상운임은 물론 원자재 인상폭 조차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출혈수출을 지속하고 있음이 수출 통계자료와 언론 기사를 통해 증명되며, 조사대상물품은 국내산업의 적자와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조사대상물품에 덤핑관세를 부과할 정도의 국내산업 피해는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하였다.

2) 신청인측 의견

조사보고서⁹⁷⁾에 의하면, 신청인측은 공청회 시('21.9.16.) 수입자측의 국내산업의 출혈수출과 그로 인한 적자발생이 국내산업의 적자 원인의 하나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청인측은 본 건 조사대상기간은 '17년에서 '20년 상반기까지이므로, 수입자측이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자료는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상황을 나타내는 적절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97) 조사보고서 pp.153~156.

설령 수입자측이 제시한 자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국내생산자는 ’21년에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터키정부의 국내생산자들에 대한 FDY 반덤핑조사와 관련, “Turkey 측 소식에 의하면 상당히 높은 덤핑혐의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단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신청인측은 수입자측이 국내생산자들이 출혈수출을 하고 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자들의 수출 판매가격이 내수 판매가격보다 더 높으며, 수출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내수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신청인측은 국내생산자들은 가동률이 낮아 생산능력에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확대되더라도 내수판매를 축소할 이유가 없으며, 수출 확대에 의해 생산량이 확대되면 내수판매를 포함한 전체 제품 원가가 하락하므로 오히려 국내산업 피해지표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청인측은 내수 판매량 및 매출액, 영업이익, 투자수익률 등 국내산업 피해지표는 내수부문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표에 있어서 수출실적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으며, 생산량, 재고, 제조원가, 고용 및 임금, 생산성,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피해지표에 있어서는 내수와 수출부문의 구분이 곤란하므로 수출과 내수부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바, 국내산업 피해가 수출실적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첫째, 신청인측은 국내산업의 생산량의 경우,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중 내수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Delta 10.6\%$)하고, 수출판매량도 대체로 감소('18년 0.6%증가, 연평균 $\Delta 13.5\%$)함에 따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연평균 $\Delta 12.7\%$)하였지만, 수출판매량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상쇄하기 위한 내수판매량이 확대되었다면 생산량은 증가하였을 것인 바, 덤핑물품 수입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 내수판매량이 충분히 증가되지 못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신청인측은 국내산업의 기말재고의 경우, 국내산업의 생산량이 소폭 감소('18년 $\Delta 1.1\%$)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년 기말재고가 전년대비 25.9% 증가한 것은 내수판매량('18년 $\Delta 5.7\%$) 및 자가소비('18년 $\Delta 34.4\%$) 감소에 따른 영향이며, '19년 기말재고가 계속 증가(8.8%)한 것은 '18년에 증가한 재고자산이 여전히 판매되지 못한 채 남아있고 수출판매량이 소폭 감소('19년 $\Delta 0.9\%$)한 상태에서 국내소비 확대('19년 19.7%)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 수입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19년 $\Delta 4.4\%$) 및 시장점유율이 축소('18년 xxx% \rightarrow '19년 xxx%) 되었기 때문이며, '20년 상반기의 기말재고 증가(6.1%)도 덤핑물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19년 xxx% \rightarrow '20상 xxx%)에 따른 영향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신청인측은 국내산업의 부가가치의 경우에도, 고용인원 및 제조원가에 대해 내수와 수출부문으로 구분할 수 없어 1인당 부가가치도 내수와 수출부문으로 구분할 수는 없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내수판매 및 수출판매 손익이 모두 악화됨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가 악화('17년 xxx백만원 \rightarrow '20상 xxx백만원, 연평균 $\Delta 11.0\%$)되었는 바, 이는 주로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인해 충분한 내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 신청인측은 수출실적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주었는지 문제와 국내산업 피해지표상에 수출과 내수부문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신청인측은 수출판매 시의 수익성이 내수판매 보다 높아서 수출 시장에 주력할 경우에는 내수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악화 등 국내산업 피해는 덤핑수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출실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면, 본 건의 경우에는 일부 피해지표가 내수와 수출부문이 혼재되어 있어 수출실적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수출을 제외하여 고려하더라도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내수부문 매출 감소에 따라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한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측은 본 건의 경우 수출비중이 내수비중 보다 높지만, (i)가동률에 여유가 있어 수출과 내수판매를 모두 증대시킬 여력이 있고, (ii)수출판매량 감소가 내수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iii)오히려, 수출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내수판매를 더욱 확대해야 하는데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한 실정이며, (iv)수출판매량의 증감과 내수판매량의 증감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⁹⁸⁾, 본 건에 있어서는 수출실적의 하락이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조사실 검토

조사보고서⁹⁹⁾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17년 1,000톤에서 '18년 1,006톤으로 0.6% 증가하였으나, '19년 998톤, '20년 상반기 324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0.9%, 34.9%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조사대상기간 중 총출하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년 xxx%에서 '20년 상반기 xxx% 수준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1.8%p 하락하였고, 톤당 수출 판매가격은 '17년 10,000천원, '18년 10,538천원, '19년 10,194천원, '20년 상반기 4,757천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6%p 하락하였으며, 수출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7년 xxx%, '18년 △xxx%,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1.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자측은 '20년~'21년 상반기 기간 중 국내생산자들의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 대비 2.2~3.6배에 이르는 동종물품에 대한 밀어내기식 출혈수출로 인한 적자가 국내산업 피해 원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동종물품의 수출 판매가격이 내수 판매가격 보다 높았고, 수출부문의 조사대상기간 전체 영업이익률(xxx%)이 내수부문의 조사대상기간 전체 영업이익률(△xxx%) 보다 높은 점, 국내산업이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손익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출실적이 국내산업 내수부문의 손익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98) 신청인측은 '18년의 경우 수출량이 0.6% 증가하였으나 내수판매량은 5.7% 감소하였고, '19년에는 수출량이 0.9% 감소, 내수판매량이 4.4% 감소하였고, '20년 상반기에는 수출량이 34.9% 감소, 내수판매량이 18.7% 감소한 점을 볼 때, 수출량과 내수판매량간에 상호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99) 조사보고서 pp.156~158.

라.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조사보고서¹⁰⁰⁾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xxx~xxx% 수준으로서, 주요 원재료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이며 기타 첨가제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톤당 TPA 가격은 '17년 10,000천원에서 '18년 12,463천원으로 24.6% 상승하였으나, '19년 10,608천원, '20년 상반기 7,485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4.9%, 34.8%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9.2% 하락하였으며, 톤당 MEG 가격도 '17년 10,000천원에서 '18년 9,798천원, '19년 6,853천원, '20년 상반기 5,480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0%, 30.1%, 20.3%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8.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가 연평균 8.5% 하락한데 비해 제조원가는 연평균 3.0%하락함에 따라,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대상기간 중 xxx%p 하락('17: xxx% → '20상: xxx%)하였으며, 연도별로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년(xxx%)에는 기준연도('17년 xxx%) 대비 xxx%p 상승하였으나,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기준연도 대비 각각 xxx%p, xxx%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대상기간 중 TPA, MEG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의 하락은 원가부담 완화에 따라 국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기에,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조사실은 원재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과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판매가격은 제조원가(xxx~xxx%)에

100) 조사보고서 pp.159~160.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격 하락 내지 상승이 억제된 것으로 검토하였다.

마. 국내생산자들간의 경쟁

조사보고서¹⁰¹⁾에 의하면,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공청회('21.9.16.)에서 저부가가치 일반 Polyester 완전연신사를 주 생산품으로 하는 6개 국내생산자들간의 내수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저가 판매가 국내산업의 막대한 적자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입자측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측은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가격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가격 보다 훨씬 높은데,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국내생산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수출자들과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가격이 높은 것은, 해외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국내시장에서는 덤핑물품의 저가판매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측은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 판매가격이 내수 판매가격 보다 높은데, 이와 같이 내수 판매가격이 낮은 것은 국내생산자들간의 경쟁 때문이 아니라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측은 어느 시장에서나 경쟁을 하고, 국내시장에서도 국내생산자들간의 경쟁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나, 아무리 경쟁을 하더라도 제살 깎아 먹기식으로 영업손실을 보면서까지 경쟁을 하지는 않을 것인 바,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이 없었다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측은 수입자측이 주장하듯이 국내생산자들간에만 경쟁을 하였다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지 못하였을 것인 바, 이러한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이 조사대상물품의 덤핑

101) 조사보고서 pp.160~162.

수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내 산업피해는 국내 동종물품간의 경쟁보다는 덤핑물품과의 경쟁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수입자측은 내수시장에서의 국내생산자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판매가 국내산업 적자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조사실이 조사보고서¹⁰²⁾ “ I .4.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생산품과 덤핑물품은 동종물품으로서 국내시장에서 상호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17: xxx% → '20상: xxx%, 14.2%p)은 확대된 반면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17: xxx% → '20상: xxx%, △10.9%p)은 하락하였고, '19년과 '20년 상반기에는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이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보다 높았으며, 수입품 중 상당부분이 조사대상국산임을 고려하면, 덤핑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8년부터 '20년 상반기까지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저가로 판매되었고,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내지 가격상승이 억제되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기타 요인

조사보고서¹⁰³⁾에 의하면, 상기에서 조사실이 검토한 사항 외에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에서 열거한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상품 생산성 등 사항은 이해관계인들이 관련 증빙이 충분히 포함된 주장을 제기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2) 조사보고서 pp.8~17.

103) 조사보고서 p.162.

사. 소결

위원회는 위의 조사실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덤핑 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요인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기타국산 물품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며, 국내소비의 변화,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 수출실적 및 국내생산자들간의 경쟁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위원회는 상기에서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17년~’20년 상반기) 전체적으로 덤핑물품의 절대적·상대적 증가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은 내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으며,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18년 이후 국내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과 가격상승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덤핑물품의 물량 및 가격 효과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국내산업은 연평균 고용인원 등 일정 수준을 유지한 부문도 있지만, 생산량 및 가동률, 시장점유율, 재고 및 내수 판매량 등이 하락 내지 악화되었고, 제조원가(판매가격의 xxx~xxx%)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 내지 그 상승이 억제됨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자본조달 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이 저해되어 생산성과 성장성이 억제되는 등 덤핑물품의 수입은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위원회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요인의 영향과 관련하여,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타국산 물품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며, 국내소비의 변화,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 수출실적 및 국내생산자들간의 경쟁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먼저,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과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으며, 그 판매가격도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보다 지속적

으로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소비가 연평균 3.0% 감소한데 비해 동종물품 내수판매는 연평균 10.6% 감소하였고, '19년의 경우 국내소비 증가(19.7%)에도 불구하고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이 감소($\Delta 4.4\%$)한 점 등을 볼 때,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국내소비 감소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TPA, MEG 등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연평균 원재료비 $\Delta 8.5\%$)으로 인해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17: xxx% → '20상: xxx%, Δ xxx%p)하면서 원가부담 완화를 통해 국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바,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이 국내 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동종물품의 수출 판매가격이 내수 판매가격 보다 높았고, 수출부문의 조사대상기간 전체 영업이익률(xxx%)이 내수부문의 조사대상기간 전체 영업이익률(Δ xxx%) 보다 높은 점, 국내산업이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손익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출실적이 내수부문의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17: xxx% → '20상: xxx%, 14.2%p)은 확대된 반면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17: xxx% → '20상: xxx%, $\Delta 10.9\%$ p)은 하락하였고, '19년과 '20년 상반기에는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이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보다 높았으며, '18년부터 '20년 상반기까지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저가로 판매되었고,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내지 가격상승을 억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피해는 국내 동종물품간의 경쟁보다는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 덤핑물품과의 경쟁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덤핑물품의 수입과 국내 산업의 피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VI.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1. 덤핑률 수준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률 산정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조사실이 산정한대로 개별공급자별 덤핑률을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어 전체 답변서를 제출한 형이 및 그 관계사, 신평밍 및 그 관계사, 티앤성, 귀왕 및 그 관계사, 형리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¹⁰⁴⁾, 관세법 제51조¹⁰⁵⁾ 등에 의거, 각각 3.95%, 5.79%, 6.11%, 10.91%, 5.00%의 덤핑률을 산정한다.

그 밖의 공급자¹⁰⁶⁾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i) 단서¹⁰⁷⁾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¹⁰⁸⁾의 규정 등에 의거, 조사대상공급자인 ‘신평밍 및 그 관계사’, ‘귀왕 및 그 관계사’의 덤핑률을 대한국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7.75%의 덤핑률을 산정한다.

2.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또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2021-1호)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율의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동종의 국내생산물품의 실제판매

104)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 “당국은 (중략)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한다. (후략)”

105) 관세법 제51조 : “기획재정부령으로 ……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06)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의미함

107) “이 항의 목적상 당국은 영의 마진 및 최소허용마진과 제6조제8항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덤핑마진은 무시한다. ”

108)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후략)”

가격,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 덤핑수입물품의 실제판매가격 등의 비교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동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정상적인 시장 경쟁환경 하에서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이익과 비용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덤핑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생산자의 이익률,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생산자의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 등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조사보고서¹⁰⁹⁾에 의하면, 조사실은 본 건의 경우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하락과 판매가격 상승 억제 등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조사실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으로 인하여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적정판매가격과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을 상호 비교하고, 그 차액을 덤핑물품의 수입가격(CIF기준)과 대비시켜 도출한 비율만큼을 산업피해 구제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산정방식이라고 검토하였다.

조사실은 조사실이 입수한 관세청 통관자료, 적정영업이익률¹¹⁰⁾ 등 신청인측 제출 자료 등을 기초로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중 최근 1년 6개월('19년~'20년 상반기)간의 국내 동종물품의 적정판매가격, 덤핑물품의 판매가격 및 덤핑물품의 수입가격(CIF기준)의 가중평균치를 적용한 상기 산정방식을 통하여 21.40%의 산업피해 구제수준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적용한 산업피해 구제수준 산정방식과 그 산정결과가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조사실이 산정

109) 조사보고서 pp.166~167.

110) 신청인측은 조사대상물품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기업경영분석」 「화학섬유(C205)」 업종의 '16년도 매출액 영업이익률 6.05%를 적정영업이익률로 제출한 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와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규정」 제21조에 따라 이를 적용하였다.

한 21.40%의 산업피해 구제수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3. 최종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

WTO 반덤핑협정 제9.1조에 따르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와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의 세액을 덤핑마진의 전액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보다 적게 할 것인가의 여부는 조사당국이 결정하며, 덤핑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동 관세는 덤핑마진 미만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소부과원칙”).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최소부과원칙”).

이에 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최소부과원칙)에 따라 산업피해구제수준과 각 공급자별로 산정된 덤핑률을 비교하여 낮은 율을 선택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최종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공급자별로 3.95~10.91%로 산정한다.

< 덤핑률 수준과 산업피해 구제수준의 비교 >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최종 덤핑률 (dumping margin)	산업피해율 (injury margin)	최종 부과수준
중국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 (“형이”) 및 그 관계사	3.95%	21.40%	3.95%
	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신평밍”) 및 그 관계사	5.79%		5.79%
	ZHEJIANG TIANSHENG CHEMICAL FIBER CO., LTD. (“티앤성”)	6.11%		6.11%
	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 (“귀왕”) 및 그 관계사	10.91%		10.91%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형리”) 및 그 관계사	5.00%		5.00%
	그 밖의 공급자	7.75%		7.75%

VII.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1. 산업피해조사 관련 의견 검토

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조사보고서¹¹¹⁾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반덤핑협정 제6.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의견 진술과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회의(‘21.4.14.)와 산업피해조사 공청회(‘21.9.16.)를 개최하였다.

이해관계회의(‘21.4.14.) 시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은 참석하였으나, 피신청인(조사대상공급자)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실이 이해관계인회의 시 주장사항에 대한 서면자료와 관련 증빙자료 등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한 데 대해,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이 “국내생산자의 다양한 소위 ‘차별사(특수사)’ 생산 가능 여부” 관련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조사실은 이를 조사보고서¹¹²⁾ “VI.1.나.1)”에서 검토하였다.

공청회(‘21.9.16.) 시에는 신청인측, 수입자측 및 피신청인측이 참석하였으며,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은 공청회 발언요지와 추가 보완자료 등을 각각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조사대상공급자)측은 공청회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실은 공청회 시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이 제출한 의견 중 국내산업의 FDY 산업에 대한 사양산업 인식 및 설비투자 관련은 조사보고서¹¹³⁾ “Ⅲ.2.다.13)”에서, 국내산업 적자원인으로서의 출혈수출 관련은 조사보고서¹¹⁴⁾ “IV.2.다.”에서, 국내생산자들간의 과당경쟁 관련은 조사보고서¹¹⁵⁾ “IV.2.마.”에서, 국내생산자들

111) 조사보고서 pp.169~170.

112) 조사보고서 pp.170~174. “VI.1.나.1) 국내생산자의 다양한 차별사 생산 가능 여부 문제”

113) 조사보고서 pp.127~130. “Ⅲ.2.다.13)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114) 조사보고서 pp.151~158. “IV.2.다. 수출실적”

115) 조사보고서 pp.160~162. “IV.2.마. 국내생산자들간의 경쟁”

의 다양한 차별사 생산 가능 여부는 조사보고서¹¹⁶⁾ “VI.1.나.1)”에서 각각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WTO반덤핑협정 제6.9조에 따라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간 조사보고서(수정본)’ 공개본을 이해관계인들에게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21.10.19.), 이해관계인들은 ‘중간 조사보고서(수정본)’ 공개본에 대해 제출기한(‘21.10.25.)까지 아무런 주장이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내생산자의 다양한 차별사 생산 가능 여부 문제

1) 수입자측 의견

조사보고서¹¹⁷⁾에 의하면, 이해관계인회의(‘21.4.14.) 시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자사가 국내 독점 수입권을 가진 주요 조사대상공급자인 xxx사의 경우 xxx~xxx기의 중합로(重合爐)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자들은 xxx사(중합로 xxx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합로를 1기씩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요 수요제품인 Semi-Dull류의 일반사만 생산하고 있으며, 이의 생산을 중단하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 차별화 원사를 생산할 여력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수입자측은 국내생산자들은 일부 차별사 제품의 경우 칩(Chip)방사(용융방사) 방식으로 생산은 가능하지만, 생산비용 증가, 품질 안정화 문제, 다양한 종류의 원사에 대한 최소생산량 문제 등으로 인해 조사대상공급자와 달리 적기에, 적량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미도교역(주)는 수입자 답변서에서 동사가 수입하는 조사대상물품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국내생산 기피 또는 국내생산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총 46개 품목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116) 조사보고서 pp.170~174. “VI.1.나.1) 국내생산자의 다양한 차별사 생산 가능 여부 문제”

117) 조사보고서 pp.170~171.

공청회('21.9.16.) 시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FDY 생산은 장치산업의 일종으로서 중합로에 의한 직접방사 방식으로 생산되는 일반사의 생산과는 다르게 칩(Chip)방사 방식에 의할 경우에도 1회 생산량이 100톤을 넘어야 안정된 품질의 원사를 경쟁력 있게 생산가능한데, 국내생산자의 경우 데니어, 필라멘트의 수, 광택 등 측면에서 다양한 수십가지 종류의 차별사를 생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Antimonium free 원사 등 차별사의 생산실적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신청인측 의견

조사보고서¹¹⁸⁾에 의하면, 신청인측은 국내생산자별로 1기의 중합로만 보유하기 때문에 적시에 차별사를 공급할 수 없다는 수입자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신청인측은 xxx사는 국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중합설비가 xxx기인데, 이 중 xxx기는 배치(batch)중합용으로서 필요시 마다 소량 다품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합과 방사가 연속되는 직접방사(Direct Spinning) 설비 외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 대의 용융방사(Melt Spinning, Chip방사) 설비를 통해서 칩(chip)을 용융하여 차별사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측은 xxx사는 국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중합설비가 xxx기이며, 동 설비를 통해서 직접방사(Direct Spinning) 방식으로 원사를 생산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여러 대의 용융방사(Melt Spinning, Chip방사) 설비에서는 칩(chip)을 용융하여 차별사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신청인측은 xxx사의 경우 국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중합설비가 xxx기이며, 동 설비를 통해서 중합과 방사가 연속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사와 차별사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신청인측은 xxx사의 경우 국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중합설비가

118) 조사보고서 pp.171~173.

xxx기이며, 동 설비를 통해서도 중합과 방사가 연속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중합체(Polymer)는 냉각하여 칩(chip)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합방사설비 외에 여러 대의 용융방사 설비를 통해서도 칩(chip)을 용융하여 차별사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청인측은 미도교역(주)가 수입자 답변서에서 제시한 조사대상물품 중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국내생산 기피 또는 국내생산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총 46개 품목의 목록에 대하여, 국내생산 유사 또는 동일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생산자들이 이 중 41개 품목은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5개 품목도 기술적으로 생산가능하다는 생산실적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측은 국내시장은 소량, 다품종 시장으로서 적기에 적량의 차별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직접방사 보다는 개별 소규모 생산설비인 칩(Chip) 방사 설비가 품종 변경 및 생산량 증감 등을 통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유리하며, 투자 소요금액 및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칩(Chip)방사가 직접방사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측은 국내산업은 '19년도 기준 FDY 생산량 중 약 xxx%를 차별사¹¹⁹⁾로 생산하고 있고, 칩(Chip) 방사 설비를 통해 CD(Cation Dyeable), FD(Full-Dull), Dope Dyed, Recycled, Antimonium free, Multi filament, 세섬사, 태섬사, 고신축사, 분섬사, 편평사, 중공사, 저융점사, 향균사 등 다양한 차별사¹²⁰⁾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중국산 물품의 덤핑수입 등의 이유로 중국산 물품에 비하여 가격측면에서는 국내 동종물품이 불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신청인측은 공청회 후 (주)티케이케미칼의 경우 '21.8월 기준으로 약 xxx개 종류의 차별사를 생산하고 있다는 생산실적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xxx사의 경우

119) 국내산업은 '19년도 FDY 생산량 xxx톤(4개사 기준) 중 일반사 xxx톤(yyy%), 차별사 xxx톤(yyy%)을 각각 생산하였으며, 다만, 일반사와 차별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업별로 다소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0) CD(Cation Dyeable): 염기성 염료 염색 가능 원사, FD(Full-Dull): 광택이 낮은 원사, Dope Dyed (원착사): 방사시 염색하여 실자체가 염색된 원사, Recycled: 리사이클 칩을 사용하여 생산된 원사, Antimonium-free: 무안티몬사, Multi-filament: 필라멘트 수가 많은 원사, 세섬사(micro): 굵기가 가는 원사, 태섬사: 굵기가 굵은 원사, 분섬사: 나뭇가지 형태를 지닌 원사, 편평사: 단면이 넓은 직사각형의 원사, 중공사: 단면에 중공(구멍)이 있는 원사, 저융점사(low-melt): 녹는점이 낮아 접착효과가 있는 원사, 향균사: 세균번식을 막아주는 원사

Antimonium free FDY의 생산 및 판매실적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조사실 검토

조사보고서¹²¹⁾에 의하면, 국내생산자들이 중합로를 1기씩(xxx사 제외)만 보유하고 있다는 수입자측의 주장과 달리, xxx사는 중합로를 xxx기, xxx사는 중합로를 xxx기, xxx사는 중합로를 xxx기, xxx사는 중합로를 xxx기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xxx사는 중합로 xxx기 중 xxx기를 칩(Chip) 생산을 위한 배치(batch)중합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국내생산자들은 다수의 칩방사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바, 직접방사 방식을 통해서는 주로 일반사를 생산하고 있고, 차별사는 주로 칩(Chip)방사 방식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자측이 국내생산자들의 다양한 차별사의 실제 생산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인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생산자들은 Antimonium free FDY를 포함한 수십종류의 다양한 차별사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조사실은 수요가 뒷받침될 경우 수입자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일 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직접방사 방식이 유리한 차별사의 종류도 있는 반면, 수요에 따라서는 신청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칩(Chip) 방사 방식이 유리한 차별사의 종류도 많은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국내산업은 국내외 수요를 바탕으로 '19년도 기준 국내 동종 물품 생산량의 상당부분(xxx%)을 차별사로 생산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차별사를 생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자측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차별사를 적기에 적량을 공급할 능력은 보유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조사실은 차별사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차별사의 종류 및 물량, 생산자의 생산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121) 조사보고서 pp.173~174.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상기에서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수입자측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국내생산자들이 직접방사 또는 칩방사 방식을 통하여 다양한 종류의 차별사를 적기에 적량을 생산·공급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시장의 현상황에 대한 수입자의 의견 관련

1) 수입자 의견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최종판정일('21.11.18.) 하루 전인 '21.11.17. 17시경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2~3년전 자료에 기반한 반덤핑 조사결과는 현재 국제 섬유경기와는 맞지 않으므로 “FDY의 현상황”을 알리고자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 '21.9월부터 중국산 FDY 가격이 급등하였고, 국내생산 FDY의 가격 인상과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해 국내에 일반사 품귀현상 발생하고 있는 바, FDY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될 경우 국내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공급망 불안이 발생할 것이므로 무역위원회의 합리적 판결을 요청하였다.

2) 신청인측 의견

신청인측은 “반덤핑 조사의 전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갖는다”는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규정에 따라 수입자는 이미 충분한 기회를 제공(공청회, 중간보고서 회람 등)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측은 수입자측의 최종판정('21.11.18.)에 임박한 의견 제출('21.11.17. 업무종료시간에 임박하여)과 조사실의 이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요구는 오히려 국내생산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충분한 기회 제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조사기간 중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등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측에게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개최,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사실의 공개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였고, 제출된 의견을 조사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였다.

그러나, 조사실은 수입자(미도교역(주))가 최종판정에 임박하여 의견을 제출한 것은 상대측인 신청인측에게는 반박의견 제출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방어권(충분한 기회 제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수입자가 주장하는 FDY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조사실은 수입자가 근거자료로 제출한 신문기사에는 FDY 가격 상승 원인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TPA, MEG) 가격 상승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입자가 주장하는 FDY 가격 상승은 최근 원유 및 석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수입자가 주장하는 국내 생산능력 부족 관련하여, 조사실은 '19년도 기준 국내산업의 FDY 생산능력은 xxx톤으로 국내소비 규모 xxx톤을 훨씬 초과하고, 생산능력에서 생산량을 차감한 여유생산능력은 xxx톤으로 중국산 FDY 수입량 xxx톤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내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급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시장의 현상황에 대한 수입자측의 주장과 관련한 조사실의 검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2.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요청 검토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덤핑수입물품 중 특정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국내생산자의 생산실적 여부, 생산 가능 여부,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다른 모델과의 대체 가능 여부, 우회덤핑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가. Recycled FDY¹²²⁾

122) 펠트병을 회수하여 세척 후 분쇄한 칩(Chip)을 용융방사하여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재생섬유이다.

조사보고서¹²³⁾에 따르면 국내 수입자 미도교역(주)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Recycled FDY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제외를 요청하였다. 첫째, Recycled FDY는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으로 화학 원료인 TPA와 MEG를 중합하여 생산되는 일반 FDY와 원재료, 제조공정에서 차이가 있으며, 둘째, GRS 인증¹²⁴⁾ 및 T/C발행¹²⁵⁾을 통해 생산·판매·유통이 가능하여 소비자 인식이 다르고, 셋째, 일반 FDY 대비 판매가격이 높고 시장이 분리되어 있어 다른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과제외 의견에 반대하였다. 첫째, Recycled FDY의 원재료인 재생 페트칩은 조사대상물품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중합체와 동일한 물질¹²⁶⁾이고, 둘째, Chip을 방사하여 생산하는 과정은 조사대상물품의 제조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셋째, Recycled FDY와 일반 FDY는 물리적 특성 및 용도의 차이가 없어 상호 대체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부과제외에 반대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으로부터 Recycled FDY의 2020년 생산 및 판매실적, 샘플 거래내역 증빙을 제출받아(2021.9.8.), 국내산업이 실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 FDY와 원재료, 생산방식 및 물리적 특성, 용도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동일 성분 및 유사한 물리적 특성으로 통관 시 식별이 어려워 부과제외 자체가 관세 행정상 곤란한 것으로 보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Recycled FDY를 실제 생산·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123) 조사보고서 pp.175~178.

124) GRS(Global Recycled Standard)는 섬유, 의류제품의 생산·판매·유통 전 단계에 있어 재활용된 원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인증기준이다.

125) TC(Transaction Certificate)는 GRS 인증 체계내에서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 판매가 되었음을 추적하기 위한 거래 증명서이다.

126) TPA와 MEG를 중합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는 FDY를 비롯한 섬유 및 페트병, 포장 필름 등의 원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나. Antimonium Free FDY¹²⁷⁾

조사보고서¹²⁸⁾에 따르면 국내 수입자 미도교역(주)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Antimonium Free FDY의 덤핑관세부과대상 제외를 요청하였다. 환경 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진 Antimonium이 첨가되지 않은 섬유제품에 대한 개발이 국내외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산업은 해당 물품의 생산실적이 없으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반면,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과제외 의견에 반대하였다. 첫째, 국내 산업에서 Antimonium Free FDY를 실제 생산·판매 및 개발하고 있으며, 둘째, FDY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다양한 첨가물 중 한 물질의 투입 여부만으로 부과제외를 인정할 시, 첨가제의 투입량이나 종류를 조절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으로부터 Antimonium Free FDY의 2020년 생산 및 판매 실적, 샘플거래내역 증빙을 제출받아(2021.9.8.), 수입자의 주장과 달리 국내산업에서 실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Antimonium Free FDY는 일반 FDY와 생산과정¹²⁹⁾이 동일하여 추가설비 없이 기존 여건으로 생산가능하며, 극소량의 보조적 첨가제(additive)의 투입여부에 따라 부과제외가 허용될 경우 반덤핑조치가 회피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Antimonium Free FDY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Antimonium Free FDY를 실제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127) Antimonium이 첨가되지 않은 FDY로, Antimonium은 TPA와 MEG의 중합과정에서 고분자 배열을 촉진하는 첨가제로서 극소량이 투입되며 인체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내분비 계통을 교란하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128) 조사보고서 pp.175~178.

129) 칩방사 방식의 FDY 생산과정과 동일한 바, Antimonium Free FDY는 '중합(無 Antimonium) ⇒ 칩 생산 ⇒ 칩 용융 ⇒ 방사 ⇒ 제품'의 과정으로 생산된다.

VIII.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및 관세법 제56조제2항 등 반덤핑 관련 국내외 규정에서는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EU·중국 및 인도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가들도 WTO 반덤핑협정과 동일하게 덤핑방지조치 기간을 5년으로 운용하고 있다.

조사보고서¹³⁰⁾에 의하면, '19년기준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생산능력은 약 xxx만톤, 생산량은 약 xxx만톤(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xxx톤)의 약 xxx배)이고 연간 약 xxx만톤 규모의 잉여생산능력(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약 xxx배)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에도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산업은 후방산업인 석유화학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원사를 제조·공급함으로써 전방산업인 직물·편직업(원단), 염색업(가공), 패션·봉제업(제품)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인 섬유산업 공급망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 산업, 토목·건축 산업 등 다양한 수요산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덤핑방지조치 기간을 5년으로 운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고, 국내산업이 조사대상국의 대규모 덤핑물품 공급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시장 영향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점, 국내산업이 주요 수출산업인 섬유산업과 자동차, 토목·건축 등 다양한 수요산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다년간에 걸쳐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경우, 국내산업이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기반하여 생산설비 확대, 제품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덤핑방지조치 부과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덤핑방지조치 부과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 잦은 재심 신청 및 조치로 국내 관련산업에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가중되고, 대외적으로는 동일 사안에

130) 조사보고서 pp.133~137. “Ⅲ.3.나.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 여부”

대한 잣은 재심 등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남발하는 국가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부과기간을 현실에 맞게 충분히 부과하여 덤핑방지조치 효과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감,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부과기간을 5년으로 하여도 산업환경 등이 변할 경우 상황변동재심¹³¹⁾ 등을 통해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에서 각 공급자별로 산정된 덤핑방지관세율(3.95%~10.91%)에 대해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적용 법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제8호, 제32조
관세법 제51조 ~ 제53조
관세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 제65조, 제71조
WTO 반덤핑협정 제1조 ~ 제6조 등

붙임자료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 조사보고서

131)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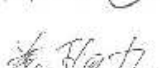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하 생략)”

무역위원회 의결 제2020-5호(“20.3.19)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상황변동재심 최종판정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2021년 11월 18일

위원장	장승화	
상임위원	나승식	
위원	오수원	
위원	김시중	
위원	김대원	
위원	강진구	
위원	조영진	
위원	이계영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

1. 형이 및 그 관계사

- (1) 형이(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
: Ya Qian, Xiaoshan District, Hangzhou, Zhejiang
- (2) 형이폴리머(Zhejiang Hengyi Polymer Co., Ltd.)
: Xiangyang Village (Yousheng Village), Ya Qian Town, Xiaoshan District, Hangzhou, Zhejiang, P. R. China
- (3) 형이하이테크(Zhejiang Hengyi High-tech Material Co., Ltd)
: Weiken fifteen section, Linyang Industrial Park, Xiaoshan District, Hangzhou, Zhejiang
- (4) 형밍(Shaoxing Keqiao Hengming Chemical Fiber Co., Ltd.)
: BL.14, Haitu Jiuyi District, Binhai Industrial Park, Keqiao District, Shaoxing, Zhejiang
- (5) 이펑(Jiaxing Yipeng Chemical Fiber Co., Ltd.)
: No.1288 Hongye Road, Xiuzhou District, Jiaxing, Zhejiang
- (6) 이징(Hangzhou Yijing Chemical Fiber Co., Ltd.)
: No.635 Chuangye Road, Hongshan Farm, Xiaoshan District, Hangzhou, Zhejiang
- (7) 상투(Zhejiang Shuangtu New Material Co., Ltd.)
: Linyang Industrial Park, Xiaoshan District, Hangzhou, Zhejiang
- (8) 형이세일즈(Zhejiang Hengyi Petrochemical Sales Co., Ltd.)
: No.311 Yaqian Road, Ya Qian, Xiaoshan District, Hangzhou, Zhejiang

2. 신평밍 및 그 관계사

- (1) 신평밍(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
: No.777 Jinlin Road, Donglin Town, Wuxing District, Huzhou City, Zhejiang Province, China

- (2) 종신(Tongxiang Zhongxin Chemical Fiber Co., Ltd.)
: Zhongchi Chemical Fibre Industrial Area Tongxiang City, Zhejiang Province, China
 - (3) 종웨이(Tongxiang Zhongwei Chemical Fiber Co., Ltd.)
: Wancun Bridge South, Zhouquan Town, Tongxiang, Jiaxing City, Zhejiang Province, China
 - (4) 종첸(Tongxiang Zhongchen Chemical Fiber Co., Ltd.)
: Zhouquan Town Industrial Area, Tongxiang, Jiaxing City, Zhejiang Province, China
 - (5) 종치(Tongxiang Zhongchi Chemical Fiber Co., Ltd.)
: Zhongchi Chemical Fibre Industrial Area, Zhouquan Town, Tongxiang, Zhejiang Province, China
 - (6) 신평밍 무역(Zhejiang Xinfengming Import and Export Co., Ltd.)
: No. 55 Zhenxing East Road,, Wutong Street, Tongxiang City, Zhejiang Province, China
 - (7) 종이(Tongxiang Zhongyi Chemical Fiber Co., Ltd.)
: No. 4 Building, Zhouquan Town Industrial Area, Tongxiang, Jiaxing City, Zhejiang Province, China
3. 티앤성(Building 1, SAN Qiu, Binhai Industrial Zone, Keqiao District, Shaoxing city, Zhejiang Province, China)
: Building 1, SAN Qiu, Binhai Industrial Zone, Keqiao District, Shaoxing city, Zhejiang Province, China

4. 귀왕 및 그 관계사

- (1) 귀왕(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
: Meiyan Industry Zone, Pingwang, Wujiang, Suzhou, Jiangsu
- (2) 강홍(Jiangsu Ganghong Fiber Co., Ltd.)
: Meiyan Industrial Concentration Zone, Pingwang Town, Wujiang District, Suzhou City

- (3) 성홍테크(Jiangsu Shenghong Technology Trading Co., Ltd.)
: The 1st floor, South of the Market Road, Shengze Town, Wujiang
- (4) 성홍섬유(Suzhou Shenghong Fiber Co., Ltd.)
: Xi Er Road West, Bali, Shengze Town, Wujiang, Suzhou City, China
- (5) 종루(Jiangsu Zhonglu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 High and New Technologies Development Zone, Pingwang Town, Wujiang, Suzhou, Jiangsu

5. 형리 및 그 관계사

- (1) 형리(Jiangsu Hengli Chemical Fiber Co., Ltd.)
: No 1 Hengli Road, Economic Development Zone of Nanma, Shengze Town, Wujiang District, Suzhou City, Jiangsu Province, China
- (2) 더리(Jiangsu Deli Chemical Fiber Co., Ltd.)
: No. 599 Huanghe Road, Suqian City, Jiangsu Province, China
- (3) 형커(Jiangsu Hengke Advanced Materials Co., Ltd.)
: Hengli Textile Advanced Materials Industrial Park, Binjiang New District (Wujie Town), Tongzhou, Nantong City, Jiangsu Province, China